

서해안권 생태 우수성 입증

국가지질공원 '지오드림' 선정... 국비 1천만원 지원 양질의 교육으로 진로 유도 및 탐방 홍보 효과 기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추진 중인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오드림(Geo-Dream)'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공모한 지오드림 사업기관으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이 선정되어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오드림 사업은 환경부와 국가지질공원사무국으로부터 운영비(1천만원)를 지원받아 지질공원 내 취약계층(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질공원, 지질공원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수강생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지오드림 프로그램은 고창 한마루 지역아동센터

등 7개 지역아동센터 학생과 학부모 3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교육과 현장 체험학습 및 지질공원 축제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올해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모니터링 등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오드림 프로그램을 부안과 군산, 진안, 무주 등 도내 지질공원 운영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지오드림 사업의 선정은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의 생태·지질자원과 이를 활용한 탐방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7년 9월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부터 작년까지 약 3천여회의 생태·지질탐방 프로그램에 5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탐방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의 인증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 진행된 지질공원해설사, 체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입상하는 등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우수 생태·지질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로 유도와 사회복합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고, 지질공원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를 창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과학자 등 이공계 분야 진출의 꿈을 심어주고 지역 내 생태·지질자원 대한 우수성을 각인시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연유산의 보전의를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 양영철 자연생태과장은 "이번 지오드림 사업 선정과 운영을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투표하기 전에 본인 확인 절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날인 13일 전주시 전주농협 4층 회의실 노송동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비, 자동이체하고 현금 받아주세요”

전북은행, 필수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시 최대 4만원 캐시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교육비를 JB개인신용카드로 납부한 고객에게 1만5,000원(월5,000원씩 3개월까지 지급)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작년부터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카드 자동이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기존에는 교육비 납입을 위해 학교 지정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교육비가 청구될 때마다 수시로 현금을 이체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

다. 사전에 학교 앞으로 카드 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전북은행에 신청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된다.

전북은행은 영업점, 콜센터(☎1588-4477), 인터넷 뱅킹, 뉴스마트 뱅킹 채널을 통해 교육비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있다.

JB카드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필수 공과금에 대한 자동이체 서비스와 캐시백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시 1만원(월5,000원씩 2개월까지 지급)

▲이동통신비 자동이체 신청시 5,000원 ▲도시가스비 자동이체 신청시 5,000원 ▲LH/전북개발공사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시 5,000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각 항목별로 자동이체를 처음 신청하는 고객이라면 카드 승인이 일어난 다음달의 20일 경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항목을 처음 신청하는 고객은 캐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금액이 최대 4만원에 달한다.

한편, 본 행사는 6월 말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들에 한하여 진행되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콜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 뉴스마트 뱅킹 어플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북스포츠과학센터, 올해도 '찾아가는 현장측정 서비스' 진행

원거리지역 학생 선수에 큰 도움

전북스포츠과학센터가 '찾아가는 현장측정 서비스'를 올해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13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스포츠과학센터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스포츠과학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원거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시간·거리 등의 영향으로 스포츠과학센터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체육선수들의 체력 측정 및 훈련방법 지도 등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이다.

대상은 도내 학생 선수(초·중·고)이며 최근 1차 지역으로 무주와 남원, 순창, 고창 등을 순회하며 약 200명의 선수를 지원했다.

측정은 기초체력(근력·유연성·순발력 등)과 전문체력(무산소성 파워) 등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또 선수들의 심리적(컨디션 조절·감정조절 등) 상태를 확인하고 선수

개인별 능력(신체근육패턴) 등도 분석한다.

전북스포츠과학센터 문동안 센터장은 "방문 측정을 통해 성장기 학생 선수들의 불균형한 신체를 균형화하는데 도움을 줘 반응이 좋다"며 "오는 5월 도내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 장비를 통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봄바람이 살랑살랑 꽃 놀이 가볼까?

이스타항공, 일본 노선 특가 할인 와이파이 도시락 이벤트도 진행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일본 봄꽃철을 맞아 일본 전 노선에 대한 특가 이벤트를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스타항공의 12개 일본 전 노선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주일간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탑승기간은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2019년 일본 봄꽃 예상 개화 시기는 규슈(후쿠오카, 가고시마, 미야자키) 3월 22일, 오사카/도쿄 3월 27일, 삿포로 5월 4일이며 만개 시기는 개화로부터 약 4일~10일 가량이다.

특히, 이벤트를 활용하면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편도총액운임기준 최저가 △인천-도쿄(나리타) 89,900원 △인천-오사카(간사이) 82,900원 △인천-후쿠오카 88,900원 △인천-미야자키 64,900원부터 등 주요 일본 항공권을 실용적인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일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와이파이 도시락 이용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와이파이 도시락은 세계 각 국가별 이동통신사의 3G/4G(LTE)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바꿔주는 데이터로밍 휴대 단말기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일본노선을 예약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일 이용권을 증정한다.

이스타항공 고객이라면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와이파이 도시락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모바일에서 확인, 예약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도로 건설의 새로운 가치 창출해 삶의 질 향상 시킬 것”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 취임

군산출신이며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신영대 민주당 군산형일 자리지원 특별위원장이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됐다.

군산제일고와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 경영학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한 신영대 부회장은 청와대 행정관과 더불어 경기도 교육



감 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해 협회가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과 정부와 민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을 지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도로협회에 따르면 이번 임명된 신영대 상임부회장이 정부와 도로협회 회원사간 조정자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도로건설 분야의 동력을 시작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키면서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며 “도로 건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관련업계의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부회장을 지낸 신영대 상임부회장은 학생운동권 출신이며 지난 18,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경선 중앙선대위 조직기획팀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현재는 민주당 전북도당 군산형일 자리지원 특별위원장으로 다가오는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